

### 들어가기 전

위대한 예술과 사상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와 장소가 있다. 르네상스 피렌체에 함께한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19세기 파리의 세잔느 보들레르 모네. 한 명의 천재 예술가의 등장은 문학 음악 미술 등 분야에 관계없이 수많은 다른 천재 예술가들의 등장을 이끄는 듯 보인다. 위대한 음악이 등장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작가들이 위대한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하며, 화가들이 위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일까? 예술 작품이 영감원이 되어 여러 형태의 **예술의 융합**으로 발현된 사례를 알아보고 그 경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음악과 문학

문학과 음악이 결합되는 형태는 시대와 개인에 따라 상이한 관점과 상상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술의 소비자가 누구인지, 유행하는 예술의 스타일이 어떤지, 사회적 배경은 어떤지가 영향을 준다. 19세기 유럽에서(독일) 등장한 표제음악은 음악과 문학의 결합의 가장 뚜렷한 예이다. 음악과 문학의 결합이라는 것은 음악이 음 자체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음'이라는 언어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즉 글로 쓰여진 문학예술을 음이라는 다른 차원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



프란츠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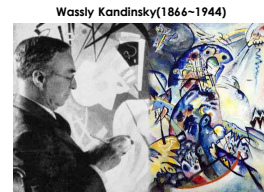
리스트의 '파우스트'

표제음악을 언급하는데 있어 리스트는 빠질 수 없는 작곡가이다. 하나의 악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장르인 교향시를 착안함으로써 음악 안에서의 문학의 가능성을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관현악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리스트의 작품 중 <파우스트 교향곡>은 대문호의 세계문학의 이념에 대한 의무를 교향시, 더 나아가 표제교향곡을 통해 음악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괴테의 희곡을 토대로 한 <파우스트 교향곡>이 있다. 이 곡의 세 악장은 각각 등장인물 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펠의 이름이 붙여졌다. 리스트는 '괴테에 의한 세 사람의 성격묘사'로 이루어진 한 편의 파우스트 교향곡 Eine Faust-Symphonie in 3 Charakterbildern nach Goethe' 라는 제목 외에 그 어떤 표제로도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주요 등장인물 세명의 악장을 제시함으로써 순수한 음악적 성격묘사로 <파우스트>를 표현하는 시도를 했다고 본다. 문학의 정신이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롭게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학의 시대에 음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표제음악은 문화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괴테의 원작과 리스트의 교향곡을 들으며 비언어적 수단에 의한 표현을 수용해보고 인지의 영역을 넓려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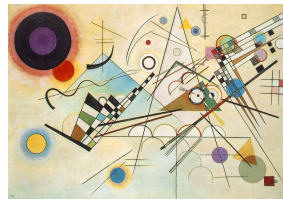
Franz Liszt - Faust symphony

### 음악과 미술

오랜 시간 동안 회화는 예술가의 내면의 표현을 그 공간으로 하는 음악과 달리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외부세계의 재현을 추구해왔다. 19세기 말 이후 회화는 대상세계의 재현 대신 매체 고유의 표현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음악은 새로운 회화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초 추상화라는 새로운 회화 형식을 만들어낸 칸딘스키에게 있어서 음악은 큰 영감원이 되었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에서 오늘날의 회화의 임무를 조형요소들을 순수하게 회화적 방식으로 사용하여 정신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Wassily Kandinsky(1866~1944)



Composition VIII, 1923

회색톤이라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작곡되는 음악은 조형요소들의 순수한 구성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었는데, 칸딘스키와 쇤베르크의 창조적인 교류는 칸딘스키가 완전한 추상화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각자의 숙명을 관통하여 이루어지는 개개의 독립적인 과정들 당신의 작품 속에서 돌리는 개개의 선율들의 독립적인 생명은 정확하게 내가 회화를 통해 찾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칸딘스키가 쇤베르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중략)... 주제가 확실한 것은 우리 시대의 화음은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없고 차라리 비기하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음악에서처럼 회화에서의 예술적 불협화음의 길입니다.”

Arnold Schönberg-Verklärte Nacht

### 음악과 건축



독일 남부 뷔르템베르크의 노이슈반슈타인 성

‘신데렐라 성’으로 유명한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템베르크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가 바그너의 <로엔그린>에 심취하여 주인공들이 사는 성을 직접 짓기에 이른다.

이름의 의미 또한 신 백조 석성(新白鳥石城)으로 성 내부에 백조 머리모양의 문고리가 가득하다. 화가 칸딘스키는 오페라 <로엔그린>의 화려한 선율속에서 내면의 다양한 회화적 이미지들을 경험하는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된 작품이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그너의 표제 음악의 내용이 그 형태를 바꿔 건축물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 외에도 많은 건축가들이 음악을 통해 독창적인 창조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이 비례의 과학인 것처럼, 건축 역시 비례와 질서, 균제, 장식에 의한 과학이므로 건축가는 음악을 통해 조화의 법칙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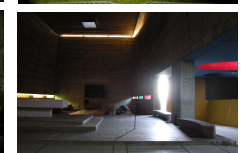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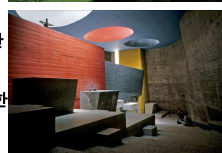
Le Corbusier(1887~1965)

20세기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라투레트 수녀원이다. 리드미컬하게 배치된 창문들과 황금비율 갖춘 3개의 파사드, 동업자 제나키스의 곡의 한 악절을 모티브로 설계되었다.

벽에 난 틈과 지붕 들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격조 또한 건물,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잘 짜여진 형식미를 갖춘 음악의 한 악장 그 자체인듯한 현대 건축의 정수이다.



Richard Wagner - Lohengrin



### 맺음말 - 융합에 관하여

융합이라 함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지거나 그렇게 만들 또는 그런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새롭게 화두되고 강조되는 단어인 듯 느껴지지만, 역사속의 많은 예술가들은 이미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융합'을 시도했던 듯 하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두 예술을 거부반응 없이 엮어낸다. 프란츠 리스트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단 세 악장의 교향곡으로 표현해냈다. '파우스트'와 '음악'의 본질을 관조하지 못하는 나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기악곡으로 파우스트의 '스토리'를 담아내는게 가능 할까? 하지만 리스트는 '파우스트'의 본질을 알았고, 세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괴테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기악곡'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언어보다 더 섬세하게, 인물의 성격을 묘사해낼 '음악'을 만들었다. 칸딘스키는 내면세계의 소리, 즉 음악과 추상 회화의 본질이 얽혀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음악과 회화의 융합을 통해 정신을 화곡에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만다.

이처럼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인류 보편에 다른 두 대상에서 더 완전한 것을 융합해 낼 수 있다. 현대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산업 시장에서 또한 통용되는 원리이다. 애플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이동식 전화기'와 'PC'의 본질이 '컴퓨터'임을 알았고 그 둘을 융합해내어 스마트폰을 창조해냈다. 그가 융합에 있어서 기술(Technology), 인문학(Liberal Arts), 인본주의(Humanity)의 결합을 강조하는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융합'의 소양으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 예술 사이 존재하는 형식의 벽을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었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사고의 형태를 배울 수 있다.

### 참고문헌

- Wassily Kandinsky,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Bern : Benteli, 1952
- Architecture & Music, 문성훈 식별저자
- Musikalische Phänomenologie des Faust-Motivs - Literar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Programmmusik im 19. Jahrhundert
- 미학강의 I, Kagan, 진중권 역, 1989
- 문학의 영혼 음악의 영감, 장미영, 이화여자 출판부, 2003
- 19세기 음악, 김충환, 음악세계, 2005